BARUN

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②	성장하려면 이끌어 줄 안내와 나아지는 과정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주장. ④는 권력을 떠안은 사람 가운데 칭찬받을 이가 '드물다'는 말을 '언제나 게을러진다'로 지나치게 넓힌 오답.
2	①	덕은 타고난 능력만으로 생기지 않고 갈고닦는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글. ④는 '타고난 능력만으로는 선해지지 않는다'와 반대, ⑤는 덕에 '조금 더 가까이' 데려갔다는 결론과 반대.
3	④	절망에 빠지는 것은 떠난 이의 기억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산 사람도 저버린다는 요지. ②는 상실이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첫 문장과 반대.
4	②	알렉산드리아 토박이 아리우스를 가리키며 그를 위해 살려 둔다고 말함 =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이임을 보여 주어 주민을 안심시킴. ④는 지문에 근거가 없다.
5	①	왕좌를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쉬는 자리로 삼는 것. 근면(hard labor)과 대비된다. ②는 왕좌에서 물러난다는 글자 그대로의 오독.
6	⑤	①·②·③·④는 Augustus, ⑤는 경기장으로 끌려가지 않은 Arius.
7	⑤	아들들이 '막사 동료'로서 옥타비아누스가 여러 학문에 밝아지게 도왔다. ① 44 BC 무렵 ② 수에토니우스 ③ 이 우정을 통해 그리스어를 익힘 ④ 영원히(for good) 곁에 머묾.
8	④	아리우스는 이집트 총독 자리를 '거절(refused)'했다. ③ token limits = 형식적인 제약.
9	③	to achieve · to master와 병렬 → to live. ① 관계절의 동사 ② 부사 ④ 복수 주어 Structures에 맞춘 bear ⑤ 관계절의 동사 urged + O + to V.
10	②	(A) least of all = 특히 ~ 아니다 (B) All S could do가 단수 주어 → was (C) 선행사 natural gifts → 관계대명사 that.
11	④	흑백의 그림은 회색 지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 plenty of는 정반대(little이 적절).
12	⑤	네 덕을 모두 '무엇을 아는 것(understanding)'으로 정의한다 → 덕 = 일종의 앎. ③ 몸의 습관, ②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은 정의 방식과 반대.
13	③	③ 앞의 '순탄할 때 용감한 것은 공이 아니다'를 주어진 문장이 In the same way로 받아 키잡이의 비유로 풀고, ③ 뒤의 like the pilot이 그 키잡이를 받는다. ②에는 In the same way가 받을 내용이 없고, ④ 뒤로 가면 키잡이가 소개되기 전에 like the pilot이 나온다.
14	②	두 스승의 가르침 · 유산 · 죽음을 다루는 흐름에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필로스트라토스 일화가 끼어듦.
15	④	주어진 글(정치적 조언) → (C) 카이사리온을 없애라는 조언 → (A) 기다렸다가 실행(however) → (B) 그 살해(Such a murder)는 더러운 일이지만 필요했다.
16	①	모든 덕을 '네' 가지 주덕 아래 정리해 스토아를 꿈꾸는 사람의 '지도'를 만들었다. ③의 two는 125쪽의 두 종류의 사람과 헷갈리게 한 오답.
서답형	VIRTUES	(1) V Alexandria (2) I Suetonius (3) R 30 BC (4) T False (5) U Marcus Agrippa (6) E Livia (7) S 27 BC → V-I-R-T-U-E-S. 완성 단어 virtues(덕) — 자기 검증 장치. 함정: A. Tarsus · B. Plutarch · C. 44 BC · F. True · J. Athenodorus · L. Drusus · G. Octavia · N. 10 AD.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에 관해서는 조금 덜 알지만,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는 훨씬 많이 안다. (양보 though / 비교급 강조 much)
→ **Though we know a bit less about him, we know much more about what he believed.**

02 옥타비아누스가 그리스어를 읽고 즐기게 된 것은 바로 이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였다. (It was ~ that 강조구문)
→ **It was through this close relationship that Octavian would learn to read and appreciate Greek.**

03 아리우스가 어떻게 그 곁에 들었든, 일단 들어온 뒤에는 굳게 자리 잡았다. (however + S + V / once 뒤 생략)
→ **However Arius came into Octavian's circle, once in it, he was firmly lodged.**

04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아리우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곧바로 알아보았다. (간접의문문 how much + 명사 + S + V)
→ **Alexandrians saw immediately how much sway Arius had with their new conqueror.**

05 아테노도로스는 주로 옥타비아누스의 교육과 도덕적 성품에 마음을 쓴 듯했다. (seem to have p.p. / concern oneself with)
→ **Athenodorus seemed to have mainly concerned himself with Octavian's education and his moral character.**

06 그의 뒤에는 자문단으로서 두 스토아 철학자가 있었다. (장소 부사구 도치 + 복수 동사)
→ **Behind him, as his board of advisors, were two Stoic philosophers.**

07 아리우스는 이집트 총독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4형식 수동 be offered)
→ **Arius was offered the position of governor in Egypt but declined it.**

08 절망하는 것은 사랑한 사람의 기억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산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다. (to부정사 주어 / not only A but B)
→ **To despair is not only an affront to the memory of the person we loved, but a betrayal of the living.**

09 이 저술의 중심에는 네 가지 주덕에 관한 논의가 있다. (장소 부사구 도치 + 복수 동사 are)
→ **At the core of these writings are discussions of the four cardinal virtues.**

10 사람을 지혜롭고 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덕들을 기르는 능동적인 실천이다. (It is ~ that 강조구문 + 단수 makes)
→ **It is an active practice of cultivating these virtues that makes a person wise and good.**

11 권력을 떠안은 사람 가운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는 드물다. (have + O + p.p.)
→ **Few who have had power thrust upon them can have that said about them.**

12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주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All S could do was + 원형)
→ **All they could do was make the best of what they faced.**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아리우스의 출생 · 사망 / 출신	기원전 70년 / 서기 10년 · 알렉산드리아
아리우스 디디무스라는 이름의 뜻	전쟁을 좋아하는 쌍둥이(Warlike Twin)
옥타비아누스의 삶에 들어온 때 / 함께 데려온 사람	기원전 44년 무렵 / 어린 아들들
아들들을 '막사 동료'라고 전한 사람 / 옥타비아누스가 익힌 언어	수에토니우스 / 그리스어
알렉산드리아 입성 해 / 그때 옥타비아누스의 나이	기원전 30년 / 서른세 살
도시를 살려 둔 셋째 이유	여기 있는 내 친구(아리우스)에 대한 호의
살려 달라고 빈 철학자 / 사면의 이유를 전한 사람	필로스트라토스 / 플루타르코스
아리우스가 제거를 권한 인물 / 그때 한 말	카이사리온(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 "카이사르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카이사르를 위해 지어져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신전	카이사리움(알렉산드리아)
아우구스투스 치세의 인구	약 4,500만 명
아리우스가 거절한 자리 / 플루타르코스가 견준 두 사람	이집트 총독 / 파나이티오스와 스키피오(로도스)
아리우스를 아그리파만큼 여겼다고 전한 사람	테미스티오스(원서 표기: 역사가이자 정치가)
위로 편지를 받은 사람 / 그녀가 잃은 아들	황후 리비아 / 드루수스
편지 속 키잡이의 비유	잔잔한 바다와 순풍은 키잡이의 솜씨를 보여 주지 못함 · 궂은 날씨가 용기를 증명
네 주덕(그리스어)	지혜 phronesis · 절제 sophrosune · 정의 dikaiosune · 용기 andreia
아리우스가 가장 아낀 덕목 가운데 하나	필로포니아(philoponia, 근면)
두 종류의 사람 / 그 출처라고 아리우스가 주장한 사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 제논
아우구스투스가 말년에 남겼다고 말한 것	벽돌의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의 제국을 남김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해	기원전 27년
덕으로 이끄는 타고난 재능 / 앞서 같은 말을 한 사람	aphormai / 파나이티오스
두 스승이 빚는 데 힘을 보탠 시대 / 영감을 받은 철인 왕	팍스 로마나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4-3. 통합 사고 문제 — 15장과 16장을 잇는 자리

문제

15장에서 아테노도로스는 미신을 깊이 믿던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도 이성과 용기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유령 이야기를 거의 틀림없이 들려주었고(119쪽 ¶1~¶2), 떠나면서는 화가 나면 알파벳 스물네 글자를 다 외기 전에는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말라고 했다(120쪽 ¶1). 16장에서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어린 카이사리온을 없애라고 권했다(122쪽 ¶6 ~ 123쪽 첫 줄). 두 일을 비교하여,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아테노도로스와 달리 직접 다룬 영역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두 스승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5장 또는 16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아리우스가 직접 다룬 영역: Whereas Athenodorus seemed to have mainly concerned himself with Octavian's education and moral character, Arius instructed him directly on _____ matters too.

아리우스가 직접 다룬 영역: political (politics로 써도 인정)
근거 1 (예시): Athenodorus seems to have focused mainly on Octavian's character: he almost certainly passed along a ghost story showing that even the scariest situations can be resolved with reason and courage, and before leaving he told Augustus not to say or do anything when angry until he had repeated the twenty-four letters of the alphabet.
근거 2 (예시): Arius, by contrast, advised Octavian directly on mopping up the potential threats to the throne, urging him in Alexandria to kill the young Caesarion because "it's not good to have too many Caesars," since he could not countenance another bloody civil war.
채점: 영역 단어(political/politics) + 두 스승의 가르침을 각각 근거로 들 것 + 15 · 16장 어휘(superstitious, reason and courage, twenty-four letters, angry, throne, Caesarion, civil war, Machiavellian, pragmatic 등) 포함. 유령 이야기를 '거의 틀림없이' 들려주었다는 추측(119쪽 ¶1)을 사실로 단정하면 감점. 두 스승의 공통점 —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로함(옥타비아 119쪽 ¶5 / 리비아 123쪽 ¶4), 아우구스투스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이 기댐(120쪽 ¶3 · 123쪽 ¶3) — 을 함께 짚으면 가산.